생태사회와 불교

생태주의와 진보

생태적 시각에서 진보란 없다

진보의 재구성?

최근 통합진보당 사건은 한국정치사 뿐 아니라 한국 사회운동사에 충격을 넘어 큰 좌절을 안겨준 사건이었다. 이른바 이정희, 이석기, 김재연으로 대표되는 당권파는 이제까지 사회역사속에 수많은 희생과 헌신으로 쌓아놓은 사회운동의 도덕적 신뢰와, 궁극에는 이뤄야 할 '진보'라는 이름을 일거에 '말아먹었다'고 비난 받고 있다. 이들은 이미 보수세력으로부터의 공격 뿐아니라 진보세력에게도 혹독한 비판을 받고 있다. 통합진보당을 지금까지 만들어온 열혈 당원들 마저 당을 떠나고 급기야. 분당의 수순을 밟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를 둘러싸고 '진보는 재구성돼야 한다'고 논의되고 있다. 그동안 진보라는 이름속에 순수성을 헤치는 반진보적 담론을 걷어내고 진정한 진보의 담론을 만들자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로운 진보를 논의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패러다임에 대해 보다 근본적으로 숙고해야한다. 왜냐하면 '소위' 진보는 다음과 같은 패러다임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첫째로 오늘의 진보는 생산력주의자, 성장주의자들이다. 과거 진보는 평등을 지향하고, 보수는 성장을 지향한다고 하지만, 결국 보수와 진보 모두 성장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맑시즘적으로 보면 진보는 '생산력의 고도화'가 기준이 된다. 궁극적으로 물질적인 풍요의 사회를 누리는 것을 지고지순의 선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10년~30년 뒤에는 미국적 생활양식(American Life Style)을, 아니면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이 평등한 분배가 이루어진 복지국가를 모델로 하기도 한다. 결국 성장이 고도화된 국가이다. 그러나 오늘날 환경위기는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성장주의가 초래한 것이다. 기후위기는 선진국들의 화석연료소비에서 비롯된 것이다. 생산력의 고도화, 성장주의는 곧 에너지 과소비형 국가를 의미한다.

만일 이대로 개발과 경제성장을 지속한다면 인류에게는 발전과 성장이 아니라 절멸로 가는 것이다. 유토피아 (Utopia)로 가는 줄 알지만 실은 디스토피아(Dytopia)의 지속불가능한 발전 방향임이 확연해졌다. 따라서 성장만을 추구하는 '지속불(不)가능한 발전' 패러다임을 '지속가능한 개발'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된다. 독일의 녹색당 이론가였던 루돌프 바로(Rudof Bahro)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경쟁과 대립을 두고 오늘날 위기를 초래한 생산력주의, 성장주의자들이며 '그놈이 그놈인 싸움'이며 결국 '이란성 쌍둥이'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두 번째로 오늘의 진보는 역시 '자원무한주의'라는 신념에 기반해 선형적 시간관, 직선적 발전패러다임에 갇혀있다.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의 사회는 자원은 무한하다는 전제위에 구축된 이데올로기이다. 오늘날 경제학도 바로 그 이데올로기를 전제하로 구축된 학문이며 정치, 문화, 사회 모두 그러하다.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것이다"는 생각은 바로 그동안 우리 사회의 발전적 관념이었다. 직선적이다. '낫다'는 것은 곧 경제적 성장, 물질적 풍요를 기준으로 한다. 더욱이 이 직선적 시간관은 비가역적이다. 경제적으로 내일은 무조건 나아져야 하고, 결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또한 모든 경제성장 발전은 수직상승하는 것을 지향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뿐아니라 국가와 집단적으로 퇴보요 후퇴이며 국가간 경쟁에서 패배한다는 공포감에 사로잡힌다. 바로 이러한 직선적 시간관은 바로 '쓰고 버리는 사회'를 만들어왔다. 이러한 시간관은 필연적으로 더 많이, 더 크게 더 빨리를 지향하며 자원소모를 가속화시켜왔다. 그러나 불교의 시간관은 순환적이다. 돌고도는 연기적 사고, 자연계에서 서로 되먹임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직선적인 시간관이 아니라 순환적인 시간관으로의 전환, 이것은 오늘날 위기를 돌려 살림의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키워드이다.

'진보' 재구성 돼야한다 제기돼

오늘의 진보 '국가주의' 틀에 갇혀

'진보' 자체엔 직선적 이미지 강해

진보, 생태위기부터 고려해야

세 번째로 오늘의 진보는 '국가주의' 틀에 갇혀있다. 분단이라는 특수한 역사적 상황 때문에 한국의 진보는 세계주의나 국제주의, 지구시민의식에 대한 경험을 할 겨를이 없이 독재와 분단이라는 다급한 상황에 대응하는데 익숙해져왔다. 국제적인 분쟁이나 전쟁 등에 대한 관심과 책임보다는 자국문제를 중심으로 사고하는데 익숙해져있다. 그런 인식 때문인지 한국사회의 진보는 국가를 궁극 조직으로 보고, 국가권력을 중심으로 변화와 변혁을 사고하는데 집중돼 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민족주의나 국가주의 성향으로 경도될 가능성이 많다. 한때 민족주의 애국주의라는 말에 전율하며 그것이 진보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만일 미국이 자국이익이나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를 주창한다면 그것은 세계사적 재앙과 엄청난 불행을 초래하는 일이 된다. 과거 피압박민족의 민족주의는 반제반봉건의 민족해방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평가되기도 했지만, OECD국가, GDP 11~13위인 한국이 민족주의를 외친다면 이것은 위험한 것이다. 이는 가난한 나라에 대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성격으로 전화될 씨앗이 된다. 국가주의, 민족주의, 나아가 애국주의는 결국 자기 국가중심의 배타성을 강화한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의원 9명이 최근 벌어진 경선 비리와 관련해 책임지고 사퇴하고 있다 <위>. 통합진보당 사태로 진보진영은 큰 혼란을 겪고있다. 의원은 배출하지 못했지만 꾸준한 활동을 하고있는 녹색당은 진보적 가치로 환경과 정치를 조율하려한다. 녹색당원들이 고리원전 1호기 가동 중단을 주장하는 시위를 펼치고 있다.

네 번째로 오늘날의 진보는 현세대주의이며, 인간중심주의, 유물주의에 갇혀있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SSD)' 용어는 간단히 '지속가능한 발전'이라고 불리고 있다. 이 용어는 브루트란트 보고서에 '미래세대의 가능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재의 발전'으로 정의한다. 미래세대를 고려하지 않는 발전은 더 이상 지속가능한 발전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소비생활 양식은 잘사는 20%의 국가들이 가난한 나라와 나눠 써야할 자원을 빼앗아 독식하고 있다. 또한 미래세대가 써야할 자원은 남겨두고 그 나머지로 현세대가 소비해야하는데 미래세대의 것까지 빼앗아 쓰고 있다. 현재 국제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에 있어 미래세대의 권리가 중요한 의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으로 비추어 보면 오늘날 모든 정치와 경제 뿐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기획한다는 진보의 이념 조차도 현세대주의에 함몰되어 있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만로 사회와 자연에 대한 변경을 결한다.

또한 현재의 민주주의와 정치는 인간만이 지구상에 유일한 의미있는 행위자로 인식한다. 모든 정치 경제행위는 오로지 인간자신의 시각에서 인간자신의 이익을 위해 결정된다. 그러나 오늘날 지속가능한 발전의 생태적 메시지는 인간이 지구상의 생태계의 한 일부분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자신이 모든 중심인양 지배하고 정복해왔던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간주한다. 동물과 식물, 수많은 무생물적 자연에 대한 권리와 그들의 존재를 고려한 사회적 가치와 결정은 어디에도 찾아 볼수 없다. 이것이 오늘날 위기를 초래한 또다른 이유라고 말한다.

생태적 관점에서 미래세대를 고려하지 않고 현세대만으로의 사회적 결정을 하며, 다른 생명과 자연의 균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인간중심적 의사결정구조는 바로 오늘날 민주주의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세대와 타생명까지 고려한 생태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해지는 이유이다.

이분법적 사고에서 다양성의 사고로

생태적사고란 모두가 관계되어 있고 연결돼있고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양성의 꽃밭에서 차이를 차별로 생각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의존적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의 진보는 기본적으로 이분법적 사고에 갇혀 있었다. 흑백논리를 부정한다지만, 결국 스스로도 좌우, 선악, 진보보수로 나누는 진영론적 사고에 갇혀 있었다. 실제 세계는 100%의 흑이나 100%의 백은 존재하지 않는다. 실은 모두 '회색'일 뿐이다. 단지 채도의 차이일 뿐이다. 그러나 실은 그것도 아니다. 무채색의 세계가 아니고 칼라(Colour)의 세계이다. 그래서 다양성이다. 자신이 '중도'라고 주장하는 말도 결국 동일한 무채색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다양성의 차원에서 보면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절대적으로' 옳다 그르다를 규정할 수 없다.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다양한 꽃들이 모여 아름다운 꽃밭이 되는 것이다. 이분법의 논리가 경쟁과 대립의 논리, 잘못된 선악의 논리를 사회화 한 것이라면 생태학에서 바라본 세계는 부분적으로 경쟁의 측면이 있지만 자연의 전체를 바라볼때는 상호보완과 상호의존의 측면이 더욱 규정적이라고 생각한다. 생물세계에는 경쟁보다는 협력과 협동하는 종만이 진화에서 살아남는다고 크로포트킨은 주장한다.

진보는 다시 성찰되어야 한다.

새로운 사회운동은 분노와 증오, 적대감이 아니라 창조와 건설, 대안사회를 위한 가치지향이 동력이 되어야 한다. 분노와 적대감은 파괴할 때는 좋은 에너지이지만 창조와 건설의 때에는 위험한 에너지가 된다. 아무튼 진보는 다시 성찰되어야 한다. 그러나 진보라는 용어 자체가 이미 직선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용어라고 할 수 없다.

위기라는 말은 다양한 많은 문제중에 절체절명의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다. 생태위기가 주는 메시지는 바로 오늘과 같이 흙과 땅을 버리고 돈을 지향하는 사회에 대한 경고이며 전환의 메시지이고, 오늘 진보가 미래를 위한 논의를 한다면 과거 평등과 자유, 민주주의라는 기존의 제한된 정치이념보다 생태위기의 메시지를 무엇보다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불교는 바로 인간만이 중심이 아니며 생물과 무생물 모두를 포함하여 존중되어야할 중생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주는 성주괴공을 반족하는 순환적인 시간관을 갖고 있다. 수평적인 인과관계만이 아니라 시간적인 인과관계의 연기적 법칙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때 불교의 자연관이 소중해지는 이유가 된다. 단지 그러한 사상을 갖는 불교의 실천에 기대를 모을 뿐이다.

유정길 (에코붓다 前 공동대표
생태사회 연구소 연구원)